

- ▶ 보도 일시: 2012.3.20(화) 조간,
<인터넷 3.19(월) 12:00 이후>
- ▶ 총 2 쪽 (붙임자료 포함)

❖ 인적자원개발과 과 장 정원호
사무관 박상운
☎ 02-2110-7266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>

쌍둥이 형제의 아주 특별한 입학식

- ▶ 고용부는 학교 밖 위기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4개소의
취업사관학교를 3월부터 확대·운영

◆ 쌍둥이인 정모군 형제(18세)는 매일 9시까지 이어지는 고등학교 정규 수업에 제대로 적응하기 못하고 1학년 때 학교를 같이 그만두고 말았다. 이후에도 마음이 답답할 때면 같이 집을 나가는 등 방황하는 시간이 늘어만 갔고 어머니의 근심도 함께 늘어갔다. 결국 어머니는 두 아들에게 돈 보스코 취업사관학교를 소개했고 돈 보스코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취업에 대한 비전이 마음에 찬 쌍둥이는 입학(3.19)을 결심하게 되었다. 이들은 앞으로 1년간 열심히 기계가공 기술을 배워 기계가공분야의 최고의 엔지니어로써 성공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.

- 고용노동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학교 밖 위기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취업사관학교를 3월부터 본격적으로 개소한다고 밝혔다.

* 학교 밖 청소년이란 가출·범죄, 일탈행위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안정 및 자립에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

- 취업사관학교는 위기 청소년들에게 단순히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

- 기숙사생활을 통해 단체생활의 료를 익히고, 봉사활동 및 심리치료, 테마여행 등을 통해 올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

직장인을 넘어 **건전한 사회인**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돕는 종합
맞춤형 지원사업이다.

- '12.2월 현재 1기 취업사관학교 수료생(69명) 중 57명이 취업에 성공
(취업률 82.6%)하여 산업현장의 일선에서 새로운 꿈과 희망을 품고
생활해 나아가고 있다.

□ 올해는 작년보다 보다 많은 위기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그
규모를 100명에서 **130명**으로 확대하였으며, 운영기관도 전년 3개소
에서 **4개소**로 늘렸다.

- 운영기관별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는 기계가공
(남, 50명)을, 광양만권HRD센터는 용접(남, 30명)을, 김해YMCA는
커피바리스타(여, 25명)를, 춘천YMCA는 피부미용(여, 25명) 과정을
운영할 예정이며,

- 전액 무료로 1년간 지원할 계획이며, 훈련생에게는 월 30만원의 훈련
장려금이 지원된다.

□ 고용노동부 박성희 직업능력정책관은 “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
빠른 순간이라며, 순간의 방황으로 인해 사회 적응이 어렵다고 포기
하는 학생들이 **반듯한 사회인**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취업사관학교와
같은 위기 청소년 지원사업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
것이다”라고 밝혔다.